

원시성을 찾아떠나는 책과의 여행

아시아 소수민족 · 국내 오지마을 · 변화하는 아프리카를 찾아서

문명사회에서 한걸음 비껴 과거의 시간과 경험을 간직한 오지를 찾아 떠나는 책이 부쩍 많아졌다. 이들 책은 지금까지 미덕으로 칭송돼 온 '속도'와 '발전'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은 오지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준다. 데, 그를 통해 두 가지 목소리를 들려준다.

하나는 물질적 풍요와 제도적 합리성 뒤에서 정신의 빈곤을 겪는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오지'라는 이름에 덧씌워진 일방적인 편견과 오해를 넘어 사람이 살아가고 변화하는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념 속 오지로의 여행

여행기에는 이 두 목소리가 섞여 있다. 《인도에 두고 온 눈물》(현몽, 창해), 《하늘 아래 만나 땅 위에 헤어지기》(전성호, 금토), 《허무의 기록》(함성호, 문학동네)은 개인이 체험한 오지와 오지사람들 이야기다. 이들 책의 주무대인 인도·중국·티벳·남미 등은 이제 대중적인 여행지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여전히 오지로 남아 있다.

저자들은 각기 스님, 교사, 시인이란 다른 입장에서 이국의 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을 만난다. '머니'를 외치며 신발까지 벗겨 가려는 인도 거지들에게 쫓겨 하루 3백달러 짜리 특급 호텔에서 묵은 현몽 스님의 해프닝은 인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또, 방학을 이용한 남미 여행에서 전성호씨는 마야 팔렌케 유적을 보며 '문명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되는 것'임을 깨닫는다.

여행지에서 좌충우돌로 벌어지는 해프닝 중심의 기행에 비해 《허무의 기록》은 내향적이다. 비자기간을 나눌 남겨두고 티벳에서 네팔로 가는 길에서 만난 한 무리의 유목민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나그네를 경계하지 않는다. 삼바, 말린 양고기, 야크 고기를 대접하고 술까지 내오면서 차를 잡아준다. 밤에는 거센 회오리 바람이 유목민을 찾아들지만 그들은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유목민들의 삶과 환생을 믿는 티벳인, 고원지방의 신비한 날씨는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오지는 색다른 체험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관심의 대상이겠지만 인간 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려는 학자들에게는 연구자료로서 의

여름을 맞아 오지여행의

경험을 담은 책이 여러권 출간됐다.

문명사회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를 담은 인도·티벳 등지의

여행기를 비롯, 일방적인 편견과

오해에 갇혀 있는 아시아 소수 민족·

국내 오지마을의 생활상, 변화하는

아프리카 등을 실증적으로 그린

보고서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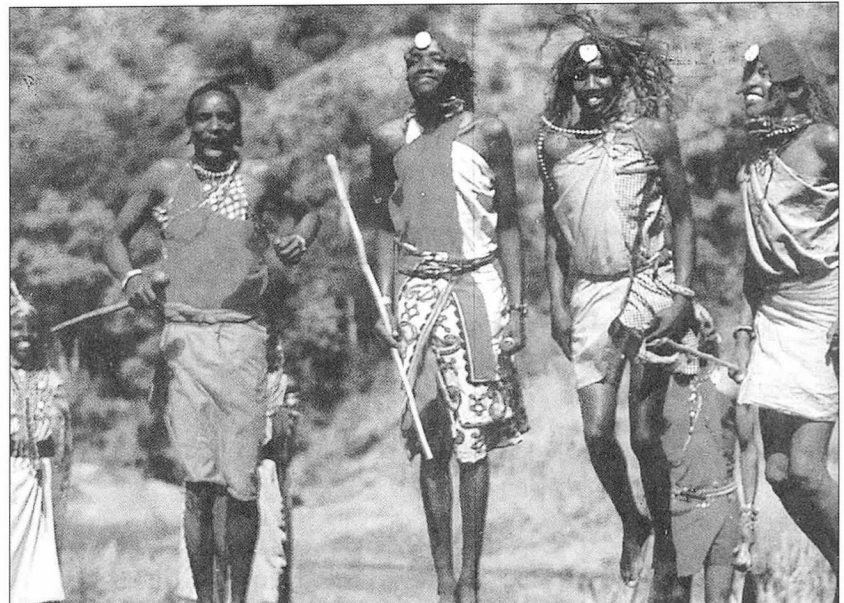
미를 지닌다. 《지상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김병호 외, 푸른숲)과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이용한, 실천문화사)는 파괴되어가는 오지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보고서다. 형식은 여행기지만 주관적 감상이나 사건보다는 오지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주를 이룬다.

《지상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은 12년 동안 UN 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수석고문관으로 일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워온 김병호씨와 사진가 함성호씨, 전 중앙일보 기자였던 고창호씨 3인이 티벳고원에서 미얀마, 타이, 인도에 이르는 지역의 50여개 소수민족의 생활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책이다.

보고서답게 삶과 죽음, 종교와 여러가지 제의, 성의식과 결혼풍습 등을 실증적으로 그렸는데, 그들의 생활은 현대적인 삶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대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 이들이 찾은 히말라야 산맥 남쪽의 두룽족 사회는 인류 최초의 지상낙원을 떠올리게 한다.

80년대가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졌고, 전세계를 통틀어 단 5200명 뿐인 두룽족에게는 '매매'라는 경제활동이 없다. 모자라면 언어 쓰고, 남으면 나눠준다. 또 정직하고 순박해 거짓말이나 도둑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주운 물건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짐이 무거우면 길 거리에 그냥 놓아두고 돌로 표시해 놓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물론 부족의 풍습 가운데는 헤드 헌팅이



전통의상을 입고 민속춤을 추고 있는 마사이족 청년들. (피카소가 사랑한 아프리카 중에서)

나 장인이 죽으면 사위가 장모를 아내를 맡아 돌보아주거나 불평등한 성 등 전근대적인 생활풍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가치판단을 배제한 이들 생활상의 복원은 우월하다고 믿어지는 현대 문명의 관습과 제도를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오지를 찾아 떠나는 대개의 책들은 항상 이런 자기성찰로 귀결된다.

문명의 아만성을 성찰하는 보고서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지마을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을 살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면서 사라진 참나무 껍질로 만든 굴피집을 강원 양양 빈지골에서 찾아내고, 지금도 메주 찹고 고추 찹는 황성 병지방의 '현역' 디딜방아도 보여준다.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온갖 옛 물건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주름진 얼굴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발전과 편리의 명분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문명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경 중의 비경으로 꼽힐 뿐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어린 일대가 수몰된다. 저자는 어차피 수몰될 곳이라며 계곡의 자연석을 한 건설회사에 몇 천만원에 팔아치우는 몰지각을 지적하며 문명의 야만성에 대해 성찰한다.

오지의 대명사 아프리카의 변화모습을 살핀 《피카소가 사랑한 아프리카》(황금가지)는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오지의 모습을 분석적으로 보여준다. 갖가지 오해와 환상에

가려진 아프리카에 대한 반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이 책은 일반적으로 오지가 되어버린 지역의 자생적인 변화를 통해 오지의 신화를 벗겨낸다. 케냐 나이로비대학에서 스노힐리어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아프리카통인 양철준씨가 직접 체험하고 분석한 아프리카는 미개와 야만의 대명사도, 부정과 부패의 온상도 아니다.

소유의 개념이 없어 수렵과 채집을 가장 편한 생활방식으로 삼는 부시맨(산족), 삶의 터전이 야생동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수렵의 전통을 버리고 문화의 매춘, 영혼의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마사이족, 목숨까지 위협하는 여성 할례의식이 남아있는 포콧족 등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너머에 있는 아프리카의 참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식민주의의 잔재 속에서도 자생적인 힘으로 정치·경제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은 더이상 서구적 관점에서의 미개지가 아니다.

사람들을 오지로 이끄는 것은 도시 삶의 획일성과 권태로움이다. 여름철을 맞아 부쩍 종수가 늘어난 이런 종류의 책들은 더위와 권태에 지쳐있는 독자들에게 틀림없이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곳조차 문명화의 이름 아래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곧 없어지리라는 경고와 반성의 말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 오지에 관한 책이 오염과 훼손을 돕는 또 하나의 지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 이현주 기자